

서호인의 '좌측담장'



무등산 폭격기, 한때 전설이었으나...

요즘이야 무등산 홍보 대사라고 하면 양현중 선수가 떠오르지만 80~90년대에는 선동열 감독이 그 역할 이상을 맡았다. 오죽하면 별명도 '무등산 폭격기'였을까. 투수 선동열이 불펜에 나와 몸만 풀어도 상대 선수들이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는 어찌 들으면 과장된 전설 같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올드팬들은 안다. '국보급 투수'는 국내 리그를 완전히 제패하고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다. 일본에서의 별명은 '나고야의 수호신'이다. 폭격기에서 국보를 거쳐 수호신까지. 별명만 나열하더라도 그의 선수 생활의 업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영웅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명투수 선동열은 화려한 선수 시절을 끝나치고 지도자가 되었다. 스포츠계에는 '스타플레이어 출신은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에 가장 두드러진 예가 선 감독이 될 것 같다. 고향 팀을 떠나 삼성 감독으로 우승을 일구면서 감독으로서도 성공 시대를 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많은 이의 축복과 기대 속에 돌아온 광주에서 그의 커리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팀은 우승권은커녕 하위권을 맴돌았고, 신생팀 NC에게도 밀리며 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다.

계약 마지막 해 역시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선 감독과 재계약을 택한다. 그러나 무등산 폭격기가 감독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던 광주의 민심은 그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수 관리에서의 허점까지 노출하며 그는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 선동열을 두고 광주의 야구팬은 지금까지도 양자적 감정에 휩쓸어한다. 팀의 레전드이자 국보 투수, 첫 번째 영구 결번. 생각지도 못한 압축기를 가져온 장본인, 더그아웃에서 뭉 썩은 표정만 보여 주던 감독.

같은 대회 축구대표 팀의 김학범 감독은 성남 시절 제자이던 황의조 선수를 뽑으며 그를 뽑아야 할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것을 누차 강조했다. 반대로 선 감독은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기도 시간 경기 중단' 이야기를 하며 개최국의 문화를 무시했고, 종목과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들을 내열하며 현지 사정의 열악함을 하소연했다. 첫 경기 대만에게 패배했고, 결승에서 만난 일본 실업팀 대표에게는 3점 차로 승리한다. 3점은 마무리 투수의 체로 기록 요건이 되는 점수 차이다. 달리 말해 전전 이었다는 이야기다. (경기 내용은 하퐁이 나왔지만)

같은 대회 축구대표 팀의 김학범 감독은 성남 시절 제자이던 황의조 선수를 뽑으며 그를 뽑아야 할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것을 누차 강조했다. 반대로 선 감독은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기도 시간 경기 중단' 이야기를 하며 개최국의 문화를 무시했고, 종목과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들을 내열하며 현지 사정의 열악함을 하소연했다. 첫 경기 대만에게 패배했고, 결승에서 만난 일본 실업팀 대표에게는 3점 차로 승리한다. 3점은 마무리 투수의 체로 기록 요건이 되는 점수 차이다. 달리 말해 전전 이었다는 이야기다. (경기 내용은 하퐁이 나왔지만)

제대로 출전하지도 못했다. 내야는 뒤죽박죽이 되어 포지션이 엉켰다. 좋지 않은 여론에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흔들려 보였다. 감독의 말대로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결과를 제외한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버렸을 때, 과연 결과는 결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저 결과만 내면 되는 자리인가. 그 결과가 이런 결과인가.

전설 속 영웅은 영원히 빛난다. 그러나 현실은 전설이 아니고, 한때 전설이었던 모든 것은 쉬이 사그라진다. 영웅도 순식간에 역적이 되곤 한다. 한때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한 선수는 지금 실패한 지도자가 되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고 싶었으나, 과거는 희미하고 현재는 강렬하다. 과거와 현재의 싸움에서 과거는 늘 패배한다. 무등산 폭격기, 국보급 투수, 수호신 선동열로 추억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하다. 아시안게임의 참사 아닌 참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간 사건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박재석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소화기센터 원장

발견도 치료도 어려운 담도암

보면 1.4: 1로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일단 발생하면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11~2015년 기준으로 29.1% (남 30.2%, 여 28.0%)에 불과했다.

발병 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황달, 피부 가려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지만 이런 증상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될 이후에나 나타나며 초기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 당시 암 진행 정도에 따라 재발 위험도 커지고 재발된 환자는 전신적 전이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담도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치료 장비 역시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경구 담도 내시경'은 담도 전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 담도나 췌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이 주로 이용됐다. ERCP는 조영제 투여 후 췌관과 담도의 형태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단하는데, 췌장은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담도

는 췌장보다 깊은 곳에 위치해 진단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경구 담도 내시경은 조영 사진이 아닌 내시경 영상으로 병변을 직접 확인하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담도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치료 내시경인 ERCP로는 치료 불가능했던 큰 담석도 제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약은 몇 년째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료 기술 발달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그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다.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41.2%에서 2010~2014년 70.3%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담도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치료 장비 역시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경구 담도 내시경'은 담도 전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같은 시기 췌장암 및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0.7%, 11.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2015년 사망자 수는 췌장암 5439명, 담낭 및 담도암 4211명으로 암 사망자에서는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위험한 것은 이들 장기가 신체 깊숙이 위치해있어 구조도 복잡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시경을 십이 지장까지 삽입한 후 담도 및 췌관에 조영제를 넣어 질한 유무를 관찰하는 ERCP가 췌담도계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ERCP는 조영제를 통한 간접적인 사진을 활용하는 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췌담도 질환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구 담도 내시경은 췌담도계까지 직접 내시경을 삽입, 간접 사진이 아닌 영상을 통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주 가는 내시경을 활용하므로 ERCP가 투사된 조영제 형태로 진단하는 것에 비해 눈으로 담도의 병변을 직접 확인할 뒤 치료가 가능하다. 그만큼 담도 질환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RCP와 마찬가지로 내시경 및 치료 기구를 통해 췌장 및 담도 내염증, 담석, 종양 등을 제거할 수 있고 ERCP로 제거하기 힘든 큰 담석도 제거할 수 있다.

담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이미 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은 편이다. 부위의 특성상 일단 암이 진행되면 수술도 까다롭고 재발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정확한 진단 방법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전봉식 21세기 환경보호협회 대표 대촌농협조합장

대촌 마을과 승촌보의 미래

므로 수량에 따라 수질 오염 반응이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산강의 수질 및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지금까지 다른 4대강에 비해 저조했다. 아직도 자연 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가 단수처리 또는 미처리 상태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영산강 분류 및 황룡강 유역의 광활한 농경지에서 살포되는 화학 비료, 유기질 비료, 농약, 제초제 등과 중소 규모의 축산 시설에서 농도도 유기질의 축산 폐수 등이 흘러든다. 여기에 사업장 폐수와 연중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 고형 폐기물, 액상 폐기물, 폐유, 독성 물질의 비점 오염원 등 오염 물질이 영산강에 상시 유입돼 대부분 정화되지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승촌보에 도달하게 된다. 승촌보는 당연히 반영구적인 오염 하천수의 저수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런 일반적인 수질 오염 현실을 덮어 버리고 전문학자, 정치인, 공직자, 전문가 등이 4대강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가적·사회적 수치지자 막대한 규모의 세금 낭비였음을 국민 모두가 잊

지 않아야겠다.

정권이 거듭 바뀌면서 4대강 댐들은 거대한 오염 공간이 됐으며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댐의 수문을 열어 저류 수위를 낮추었으나 결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천 바닥부터 수문까지는 두꺼운 시멘트 구조물이며 이 하부 구조물의 높이와 길이로 발생하는 공간에는 연중 강물이 채워지므로 강물 속에 들어 있는 침강성 물질 등의 수질 오염 물질은 하부 구조물인 보안에 침강 및 퇴적되어 거대한 반영구적인 2차 환경 오염 물질이 된다.

3년 전 8월 승촌보 내 강물의 온도가 33℃로 측정됐다. 당시 승촌보 하류 주변 대촌 들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농작물에 지하수를 살포하였는데 4~5분 후 농작물 모든 잎들의 표면이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광주권 TV방송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승촌보에 채워지는 강물의 수압으로 강바닥의 혐기성 오염 물질과 오염수가 연약한 지층을 따라 이동하다 시설하우스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유입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승촌보의 수문은 개방됐지만 수문 하부 구조물의 높이가 7~8m에 달한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도시 지역 내 퇴적된 모 든 수질 오염 물질을 끌고 유하하는 빗물 속의 침강성 오염 물질은 승촌보 내에서 4~5일 정도 체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퇴적물 노출이 현재 승촌보 중앙부 및 보의 양단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런 퇴적 속도라면 20~30년 이내에 승촌보의 대부분이 침강성 오염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승촌보 건설 이전에 남구 시산마을 옆을 흐르는 영산강 분류에 화장보라는 높이 2.5m 정도의 수중보가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 보 내부는 오염성 퇴적물로 가득 채워져 연중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았음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앞서 발생한 대기 오염과 지하수 오염 문제는 하천 내 설치된 수중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다. 승촌보와 같은 거대 규모의 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피해이므로 이제는 승촌보의 철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社說

잘못된 대기업 '고용 세습' 관행 이젠 버려라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광주 지역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기록권을 지키려는 노조의 반발에 막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부터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를 진행 중인 기아차는 올해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에서도 고용 세습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현행 단체 협약은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를 근거로 채용 특혜 폐지를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하자 또다시 물러섰다고 한다.

금호타이어도 단체 협약에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사 결정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 측은 2년

전 임-단협 과정에서 수정을 제의했지만 노조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올해도 다음 달 단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조합원 권익을 내세운 노조가 수정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이나 신앙, 연령, 출신 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근로자의 자녀나 직계 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대물림'으로 현대판 음서(蔭祿)라 하겠다.

특히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아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노사가 합의해 고용 세습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자율적인 개선이 여의치 않다면 대기업 고용 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구청사 입주 상인들 눈물 닦아 줄 방도 없나

한동안 광주 시민들은 남구 백운고가 를 지난 때마다 흉물스러운 회색 콘크리트 건물과 마주해야 했다. 옛 화니백화점이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건립을 중단한 채 오랫동안 방치한 10층 건물이었다. 지난 2011년 5월야야 광주 남구청이 이를 매입해 청사와 상가로 함께 사용하기로 해 다행이다 싶었다.

남구청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남구청은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35년까지 지하 1~지상 4층 임대권을 양도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조례를 개정해 캠프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캠프는 (주)광주메가몰과 9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

한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매출이 줄면서 (주)광주메가몰에 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식당과 커피숍, 스

포츠, 의류 매장 등 50개 입주 점포 가운데 현재 15개 점포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35개 점포는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들이 매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매가몰 측은 두 달치 임대료를 캠프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가몰 측은 지난 5월부터 캠프에 1년 동안 임대료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빛을 내 인테리어를 한 후 입주한 상인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폐업을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캠프는 임대료만 챙기려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남구청 역시 상가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 남구청이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만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유예하고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달 17일부터 광주일보 1면에는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광주 지역 14세 아이들의 '생생한 육성'이 실리고 있다. 내일부터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14세&세계&경계'라는 작품이 그것인데, 아이들의 이야기와 경계에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시기가 실린 '지면 자체'를 전시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고 한다. 13주간 작품이 실릴 광주일보 신문은 11월 1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 전시된다. (매주 작품이 첨가되는

생생한 글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 만화 '고독한 미식가'를 그린 다니구치 살 아이들은 자신의 꿈, 가 보고 싶은 곳,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그가 14세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경계에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시기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흥국 명보, 일본 오카야마 산요신문 등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작가는 작품이 문화면이 아닌,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실리길 바랐다. 정치·국제 등 신문에 실린 '카다란 이슈' 가운데 '14세 아이들의 '사소한 목소리'를 듣는

14세 그리고 비엔날레

시타미치 작가가 광주에서 만난 열네 살 아이들은 자신의 꿈, 가 보고 싶은 곳,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그가 14세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경계에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시기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흥국 명보, 일본 오카야마 산요신문 등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타미치 작가가 광주에서 만난 열네 살 아이들은 자신의 꿈, 가 보고 싶은 곳,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그가 14세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경계에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시기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흥국 명보, 일본 오카야마 산요신문 등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작가는 작품이 문화면이 아닌,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실리길 바랐다. 정치·국제 등 신문에 실린 '카다란 이슈' 가운데 '14세 아이들의 '사소한 목소리'를 듣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도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